HKJ 2016

발 행 처 : HKJ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한국무용파트
편 집 인 : 박진영
편집부장 : 김재은 / 학생부장 : 최은영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307호
전화 : 02-2220-1334
팩스 : 02-2297-7746
e-mail : kip1004@nate.com
인 쇄 소 : 한국문화인쇄

내일의 춤꾼 내일의 예술가가 있는 HKJ(Hanyang Korean dance Journal) 2016년 2월 2일 / 제15호 HKJ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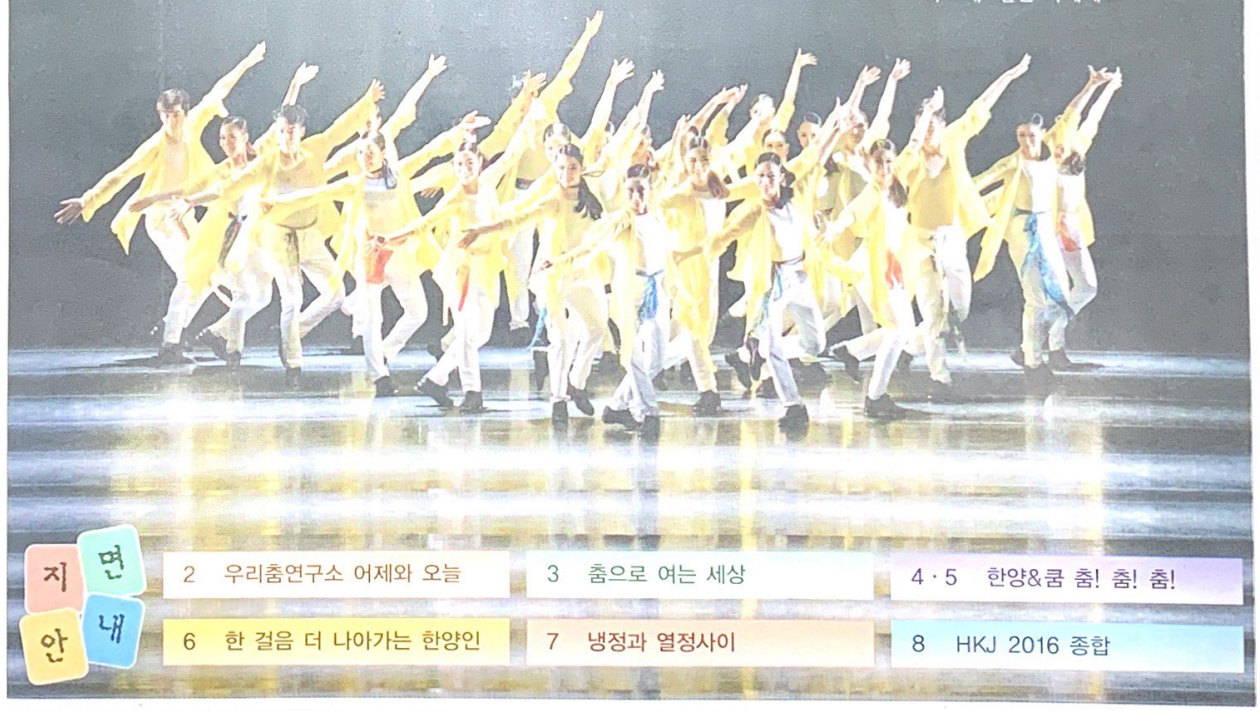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운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본 별들은
수억광년 전에 출발한 빛

길 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

박노해-별은 너에게로



지면 안내

2 우리춤연구소 어제와 오늘
3 춤으로 여는 세상
4 · 5 한양&쿰 춤! 춤! 춤!
6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양인
7 냉정과 열정사이
8 HKJ 2016 종합

2015 우리춤 연구소 10주년 제 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문화유산 콘텐츠의 미래와 융복합적 담론"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한양대학교 후원으로 2015년 11월 7일(토)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제9회 '동아시아 문화유산 콘텐츠의 미래와 융복합적 담론'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올해 9회를 맞이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은 2013년과 2014년에 논의된 이론적 바탕 위에, 현재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에서의 융복합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취지에 의미를 두며 남상원 우리춤연구소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영무 한양대학교 총장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본 학술심포지엄은 「동아시아 문화유산 콘텐츠의 미래와 융복합적 담론」을 주제로 국제적 관점에서 융합콘텐츠에 대한 연구 아젠다를 도출하고, 융합적 지식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이 글로벌화와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학술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다.

발제는 Naoko Tosa(일본), Frederick Curry(미국), Jia Yunpeng(중국), 김형기(중앙대), 김운미(한양대), 이미희(한양대), 토론은 서용덕, Steven D. Capener, 조성호, 윤수미, 황 인 등 많은 교수와 연구자, 미술평론가가 참여하였다.

최은영 기자

"우리춤과 과학기술" 한국연구재단 계속평가 결과, 등재학술지 유지

2005년 12월에 창간호를 발간한 『우리춤과 과학기술』은 우리춤을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학제 간 융합연구의 결정체로, 창간 3년 만에 등재학술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11년 등재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된 학술지 계속평가 결과, 등재학술지 유지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

대학 부설 최초의 춤 연구소인 우리춤연구소는 학제적 연구를 통한 무용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 무용학의 글로벌 확산을 목적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을 연간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5년 28, 29, 30, 31집이 발간되었다.

그 결과 과학, 교육, 의학, 인문 등의 모든 연구영역을 수용하여 학제 간의 장벽을 허물고, 융합과 창조의 새로운 양상을 선보였다.

우리춤의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발전시켜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국제적 문화 교류로 세계만방에 널리 전파하고자하는 우리춤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같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술지가 될 것을 기대한다.

박진영, 김재은 기자

"2015 일본단기 한국어 연구"

"2015 일본 단기 한국어 연구" 행사가 8월 12-13일 이틀간 한양대학교 한국무용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한양대학교 국제 협력팀과 우리춤연구소가 매년 함께 주최한 행사로 일본의 각 대학교(도카이대학교, 나가사키외국어대학교, 킨키대학교 등)에서 모인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한국의 전통춤 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를 접하며 우리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습회를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수업 진행에 앞서, 일본학생에게는 생소한 강강술래를 영상으로 관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 후 수업이 시작되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강습회는 세계 공통언어인 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수업진행에 따라 열심히 임하며 남생이 놀이,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기와밟기, 꼬리잡기, 멍석말이, 문지기놀이 등 처음에는 어려워했던 동작들을 능숙히 소화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며 함께 즐기고 호흡한 것과 같이, 일본을 넘어 세계 각국의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미라 기자

제8회 우리춤연구회 강습회

2008년 발족 이래 매년 강습회를 개최하는 우리춤연구회는, 2015년 12월 19일(토) 한양대학교 IT·BT관 한국무용 홀에서 제8회 우리춤연구회 강습회를 열었다.

올해 강습회는 조흥동의 '진쇠춤'으로, 다양한 춤사위 중 경기도당굿 민속무용의 진쇠춤을 재창작한 조흥동 명무의 대표적인 창작민속무용이다. 경기도당굿 진쇠장단 특유의 엇박 장단으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여러 유형의 진쇠춤 가락과 음악을 집대성하여 자신만의 진쇠춤으로 안무하였다. 이 춤은 쇠를 들고 절묘한 가락과 소리를 내어 잡귀를 물리치고 신성한 터를 마련하기 위한 춤으로, 나라의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노래하고 국운을 빌며 제사를 지낼 때 천신과 지신에게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추어진 춤이다.

제8회 강습회는 많은 학생들과 무용전공인들의 참여 아래, 절제미 속에서 신명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진쇠춤을 배움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공주희 기자

자유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연수단원을 마치며

대학원 수료 후 휴식기간을 가지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4년 학부 졸업부터 조교, 대학원 수료까지 마치니 쉬어갈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쉬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하는 많은 생각이 들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예술자료원 연수단원의 기회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에 조금 고민도 되고 망설여지기도 했다. 관심이 있던 분야도 아니고 자료원이라는 곳,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망설여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의 경험, 망설여지게 한 그 이유 때문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예술자료원, 아카이브, 구술채록 등을 알아보고 준비했다. 면접에 첫 출근까지 일사천리로 어느새 예술자료원 연수단원이 되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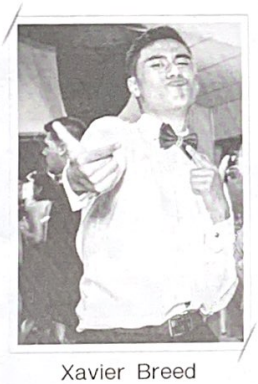
예술자료원의 첫 느낌은 신세계였다. 항상 자료를 찾던 곳은 주로 학교 도서관, 인터넷, 혹은 국회도서관이었는데, 도서관에는 없는 많은 예술 자료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다양한 영상물들을 보유하고 바로 열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포스터, 대본, 단행본, 간행물 등 종류가 상당했다. 그 외에도 구술채록 사업 등 꽤 많은 사업과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그 동안 많이 관심 갖지 못하고 무지했음을 느꼈다.

그 곳에서 주로 맡은 업무는 자료수집 및 정리, 무용전시, 그 외에 무용관련(구술채록) 업무였다. 첫 번째 업무는 기존에 기증받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올해 계획된 기증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는 일이었다. 각각의 수장고에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많은 자료들이 있었다. 한 두 점이 아닌 몇 백, 몇 천 점의 자료들이 수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리는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입력해 목록화하고 목록 번호대로 자리에 정리하는 것이다. 직접 보고 분류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일이다. 수집은 기증을 원하는 기증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가서 직접 기증자료를 선별해 가지고 오는 일이다. 주로 프로그램, 포스터, 영상, 사진, 공연자료, 단행본 등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데, 단 실물자료는 가져오지 않는다. 자료 수집을 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으로 7~80년대 옛날 자료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신기했다. 두 번째는 무용역사기록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록과 구전심수, 구술채록에 대한 무용전시를 준비했다. 전시 또한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라 기대가 컸다. 전시담당자와 함께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재미있게 준비했고 전시기획의 과정도 배울 수 있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원로 무용인들의 실물자료와 이야기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외에도 무용관련 업무에 조금씩 참여하고, 구술채록도 직접 옆에서 보고 도우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짧다면 짧은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예술자료원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며, 스스로의 시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다양한 경험이 생각을 변화하게 했고,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처음의 망설임이 무색할 만큼 마지막에는 시원섭섭함과 함께 많은 것이 남았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이 멀지만 나를 포함한 무용전공자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할 일들이 많음을 느꼈다.

김소연

학우인터뷰



Xavier Breed

1.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 계기는?

한국으로 교환학생 오게 된 계기는 한국의 무용 테크닉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였고, 뉴질랜드와는 다른 한국의 무용 테크닉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처음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 중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한국이 일본보다 현대무용 테크닉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여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학 중 한양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제 한국 친구들에게 무용과로 유명한 대학교가 어딘지 물어봤는데, 한양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세종대학교라는 답변을 듣고 고민 끝에 한양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2. 한국에서 생활하며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원래 발레, 힙합, 태평양 춤을 추다가 현대무용으로 전공을 정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환학생을 와서 실기수업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교수님이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과 분위기 또한 제가 다니던 대학 분위기와 비슷해서 적응하기 좋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하는 테크닉과 다른 새로운 테크닉을 배울 수 있어 의미 있었고,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사하는 문화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선배 혹은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 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소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즐거웠던 일 밖에 없었습니다.

3. 한국의 무용에 대한 생각은?

한국의 현대무용은 테크닉이 아주 좋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현대무용은 발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용수들이 하는 동작의 선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무용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본 한국무용이 삼고무와 부채춤입니다. 한국무용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춤처럼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깃든 춤이어서 정말 아름다웠고 보는 내내 신기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번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뉴질랜드의 춤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뉴질랜드의 무용은 힙합과 태평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힙합을 가장 잘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유명한 안무가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뉴질랜드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 까닭에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새로운, 퓨전 스타일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마오리족 춤과 현대무용을 융합하여 만든 안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무용과 비교를 하자면, 한국의 무용은 부드러우면서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무용은 더 강하고 격렬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5. 졸업 후 앞으로 계획은?

저는 졸업 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안무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졸업을 하고 아크람 칸 무용단에 들어가서 안무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대학교 교수님이 유네스코의 예술 분야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을 보며 고유한 세계의 모든 춤을 보전의 목적을 두고 유네스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신예희 기자

축제70 (부제 20150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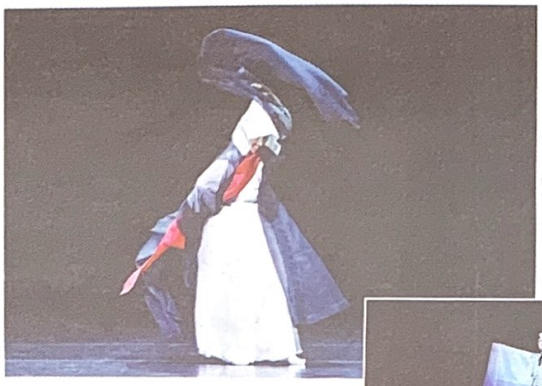
쿰 댄스 컴퍼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댄스 다큐 시리즈 '축제70'이 2015년 9월10-11일 오후7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공연의 예술총감독인 한양대 김운미 학장은 병석에 누워 있는 모친을 위해 후배 무용가로서 경의를 담아 이번 공연을 준비하였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올바른 역사인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연을 올렸다.

본 공연은 사실적인 연출과 영상, 무대 활용을 통해 여러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한국 문화의 신명과 미를 알리고자 하였다. 더불어 무용과 영상, 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전시와 공연, 공연 후 체험전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시는 김운미 학장의 어머니 미산(美山) 이미라 선생님의 작품 전시를 통해 이미라 선생님의 작품세계를 감상하는 동시에 역사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발표된 쿰 댄스 컴퍼니의 댄스 다큐 시리즈의 연작인 '축제70'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해 우리춤과 순국선열과의 만남을 모티브로 불굴의 투지와 희생정신을 춤으로 풀어내는 시도를 했다. 공연은 8·15 죽하행사가 열리는 2015년의 광화문 광장에서 현대인들의 바쁜 삶을 배경으로 시작해 과거 속 임진왜란으로 되돌아가 왜적과 맞선 이순신 장군에서부터 명성황후의 시해,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흔들며 펼친 3·1만세운동, 해방, 남북분단, 산업화, 오늘날의 경쟁시대로 돌아오는 독립된 짧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은 옴니버스 형식의 구성을 보였다. 이를 단지 연기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닌 각 장면의 주제와 흐름에 맞는 표현적인 혹은 이미지화된 신체 움직임으로 그려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흘러간 역사를 한국 춤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형식의 춤을 통해 또는 전시를 통해 감동의 무대를 올릴 수 있었으며 공연은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공연 이후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이 이어졌다. 박진영, 김재은 기자

광복 70주년, 그 날을 돌아보며

1945년 8월15일, 우리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다.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광복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광복은 '빛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빛을 되찾았다는 뜻이다. 나라를 되찾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국토만을 되찾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역사를 함께 되찾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들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섞인 노고가 서려있다. 독립운동을 하며 헌신하였고, 본인의 재산을 팔아 독립 운동을 지원하는 등, 이 같은 일련의 노력은 지금 현대인들에게까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광복 후 놀라운 속도의 경제 발전을 보이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1997년 금융위기를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하는 등 여러 굴곡의 시간을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했다.

광복절이 그저 공휴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순국열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 김재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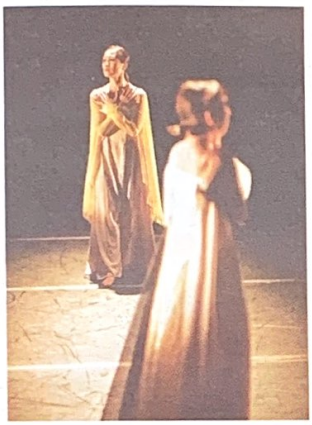
축제70 출연진 통일나눔펀드 기부

쿰댄스컴퍼니(KUM Dance Company)는 지난 11월 19일, 통일운동을 위한 공식 기부금 모집 단체인 통일과 나눔 재단에 136만원을 기부했다.

광복70주년 기념공연인 '축제70'을 계기로 김운미 예술체육대학 학장님의 제안 하에 단원 전체가 동참하여, 단원 36명이 각 1만원씩, 김운미 학장님이 100만원을 통일나눔펀드에 기부했다.

박진영 기자

墨間(묵간), 열일곱번째이야기
[History of Time] 시간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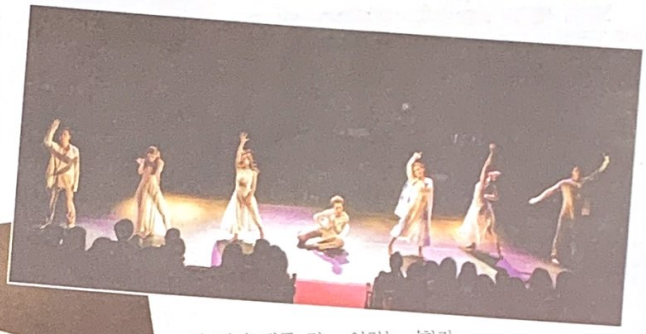


쿰 댄스 컴퍼니의 젊은 안무가들이 펼쳐내는 소극장 기획공연 묵간이 올해로 열일곱 번째를 맞이하였다.

본 공연은 2015년 7월 3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묵간 열일곱번째는 올해가 광복70주년인 점에 착안하여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여 존재하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시간의 역사"라는 공동주제로 안지형, 김수기, 박진영 세 명의 안무가가 작품을 선보였다. 세 명의 안무가는 각자 자신의 춤 세계를 구축하여 개성 있는 무대로 만들었다.

안지형 안무의 '마지막 수요일'은 위안부 할머님들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1992년을 시작으로 24년째 매주 수요일 시위를 통해 역사의 시간 앞에 당당히 앞선 할머님들의 희망과 의지 그리고 당당한 외침, 바람을 담아 구성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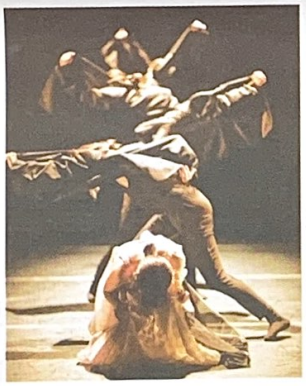
미디어아트를 이용해 안무의 도를 더욱 부각시켰고,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따뜻함으로 능숙히 풀어내어 관객들에게 가슴 뭉클해지는 감동을 선사하였다. 안지형 안무가는 〈黑-내가 숨쉬는 공기〉,〈하늘바라기Ⅰ·Ⅱ〉,〈숨(su:m) Ⅰ·Ⅱ〉,〈몸아라리〉,〈연의 노래〉 등을 안무하였으며, 신작 〈마지막 수요일〉은 역사와 현실에 직시에 대한 정도(正道)를 풀어냈다.

두 번째 작품 김수기 안무의 '우리형'은 연극적인 요소가 진하게 담긴 작품으로 무용수 각 개인의 특성과 캐릭터가 분명하게 보여졌다. 독립군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현시대에는 당연히 여겨지지만 그 시절에는 숨 막히게 간절히 갈망했던 자유를 위해 투쟁한 독립군의 애환을 그려냈다. 〈우리형〉이라는 제목과 달리 무거운 주제를 단순화시켜 관객과 소통하였다.

마지막 작품인 박진영 안무의 '바람의 기억, 강물에 흐르다'는 일제 강점기 이후 6·25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우리나라가 그 이후 빠르게 경제성장한 것을 일컫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안무자는 한강의 기적을 작품의 모티브로 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굴곡진 순간을 물과 바람이라는 소재를 대입하여 그 이미지를 춤으로 풀어내었다. 라이브 연주와 어우러지는 춤동작으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하는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켰다. 박진영 안무가는 〈동상이몽 -이중적 고찰 Ⅰ·Ⅱ〉이라는 작품으로 인정받은바 있으며, 희로애락이 담긴 〈바람의 기억, 강물에 흐르다〉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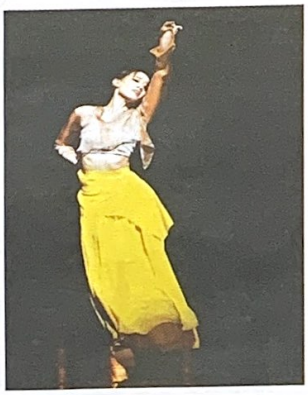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묵간 세편의 작품 안지형 안무의 〈마지막 수요일〉, 김수기 안무의 〈우리 형〉, 박진영 안무의 〈바람의 기억, 강물에 흐르다〉는 관객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며 뜻 깊은 무대를 만들었다.

김재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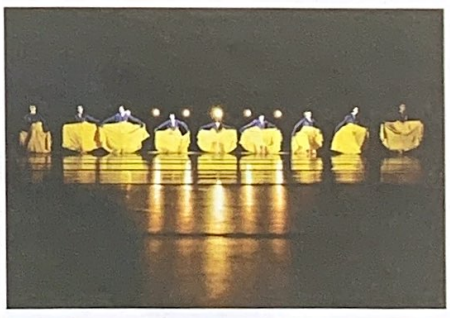
2015 Kum Dance Company Performance

〈 크리틱스 초이스 2015 〉



댄스포럼에서 주최하는 〈 크리틱스 초이스 〉는 평론가가 엄선한 젊은 무용가 초청 공연으로 2015년 6월30일~7월7일까지 총8일간 대학로 아르코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총 9명의 무용가가 참여하였고, 그 중 모헤르댄스프로젝트의 대표이자 주목받는 차세대 젊은 무용가로 선정된 서연수 안무작 '결혼'은 7월6일~7월7일 이틀간 공연되었다. 신작인 "결혼"은 '한 여자의 기차 여행'이라는 테마로, 결혼을 통해 쉼이 아닌 또 다른 종착역을 향해 나아간다는 삶의 길이를 기차여행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안무가 서연수는 자서전 [결혼]을 바친다고 한다.

전미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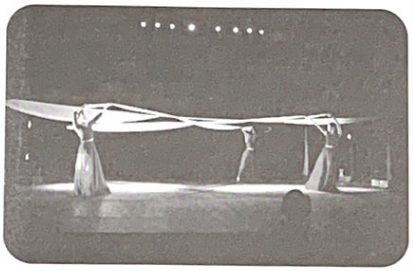


춤으로 꿈꾸며 미래를 열어간다!

창작발표회

2015년 4월 29, 30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한양예술극장에서 무용학과 2,3학년 학생들의 창작발표회가 열렸다. 예년과 같이 학생들은 함께 노력하여 안무한 작품을 무대에 선보였고 이는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친 학생들과 본 공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준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강하라 기자



정기공연

2015년 11월 18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정기공연의 막이 올랐다.

김경숙선생님이 지도한 1학년의 '태평무', 서연수선생님 안무의 2·3학년 '그리고 봄', 마지막으로 이정윤선생님 안무의 남자 군무 '밴마루 춤'을 통해 한국무용의 다채로움을 보여주었다. 공연준비 과정부터 무대에 오르기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빛이 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조은비 기자

졸업발표회

2015년 12월 11일,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한양예술극장에서 무용학과의 졸업발표회가 열렸다. 졸업생들은 준비기간 동안의 노력과 수많은 고민 끝에 졸업발표회를 성공적으로 올릴 수 있었다. 4년 동안 성장한 모습과 각 팀의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무사히 막을 내렸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졸업생들에게 이번 졸업발표회를 통해 사회로 나아가기 전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손수연 기자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화 봉송 특별공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종합 스포츠 축제이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실질적인 첫 행사인 성화 봉송의 경유지로 한양대가 선발되어 2015년 6월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 신본관 앞에서 광주유니버시아드 성화 봉송 행사가 개최 되었다. 4일에 시작된 성화 봉송은 고대 올림픽 개최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태양으로 점화한 횃불을 올림픽 개최지까지 릴레이로 봉송하여 주경기장의 성화대에서 개회식부터 폐회식 날까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기념하는 행사로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을 시작으로 빛 광(光)자를 그리며 성화가 전달되었다. 경유지인 한양대 서울캠퍼스 전체를 돌게 될 성화 봉송 행사에는 이영무 총장과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을 포함해 25명이 참여하며 자리를 빛냈다 .김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세계 젊은이들의 뜨거운 스포츠 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한양대 구성원 모두가 힘차게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의 특별문화공연이 실시되었다. 김운미 예술체육대학장의 연출아래 무용학과 재학생16명으로 구성된 공연은 '꽃이 하나 되어...'를 비롯하여 세 파트(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로 구성되었으며 "성화의 불과 축하행사의 꽃들이 다 같이 하나 돼 성화를 더욱 밝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김운미 예술체육대학학장은 설명했다. 이날 성화 봉송과 함께 이루어진 문화행사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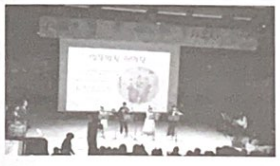
박이림 기자

한국무용 파트의 한 해를 마무리 하며

2015년 12월 21일,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한국무용학생들의 시연회가 IT·BT관 한국무용홀에서 진행되었다. 시연회는 매주 월·수·금요일 레슨시간에 습득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기량을 발휘하는 자리이다. 이번 시연회에는 창작 작품(서연수 선생님), 하체 기본(안지형 선생님), 태평무 한영숙류(김경숙 선생님)를 선보였으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한 학기동안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시연회는 학장님의 뜻 깊은 말씀과 더불어 선생님들의 덕담이 더해져 훈훈한 분위기에서 마무리 되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스스로 알아서 행하는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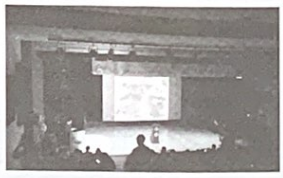
최정임 기자

사회복지법인 보육원이든아이빌 제12회 사랑의 하모니



2016년 1월 15일(금) 오후 7시, 광진구청소년수련회관에서 개원 65주년 제 12회 이든아이빌 사랑의 하모니의 막이 올랐다. 이든아이빌은 많은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쿰 댄스 컴퍼니 또한 매년 후원을 통해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 하모니는 1, 2,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개회사와 축사, 원장님 말씀 및 각종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2부에는 두 아이의 돌잔치 진행, 3부는 본격적인 발표회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댄스, 악기연주, 합창, 태권도 등 다양한 장기를 보여주었고 아이들의 생동감 있는 몸짓이 관객들에게 환호성과 웃음을 자아내었다. 이든의 '착하고 어질다'라는 뜻처럼 아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주희 기자



HKJ 창간 15주년

- HKJ 15개의 기억 -

문화예술 지원 사업 안내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사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 지원〉
「2016년 서울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계획한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우수 공연의 레퍼토리화를 위한 재공연 지원사업」
- 2016년 서울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계획한 예술 단체 및 예술가

〈서울메세나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전문예술단체의 예술창작지원 활성화」
1) 지원신청기간, 자격
-2016. 2~3월 (예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2016년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기업의 후원이 확정 된 프로젝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과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1)지원신청자격
-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가(예술가교사, 예술강사 포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대한 지원으로 플러스 티켓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공연장 유입을 유도, 예매율 저조 등 시장 침체 흐름 반등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댄스 V스쿨라쉽 프로그램 참가 신청〉
「한국의 젊은 무용가 및 안무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댄스웹 스쿨라쉽 프로그램, 매년 7월에서 8월까지 5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되며, 65여명의 세계 젊은 무용가와 안무가를 선발하여 리서치, 워크숍, 멘토링, 공연관람 등을 제공하는 집중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한국문화예술사

〈2016 예술강사 지원사업〉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토요동아리, 초등학교 돌봄 동아리, 중학교 자유학기제(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예술강사 활동 희망자 모집」
1) 지원기간
- 2016. 3~12(10개월)
2) 모집방식
- 예술강사가 제안한 교육계획서(붙임2)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 안내 가이드북 제작,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학교가 원하는 강사의 배치를 신청

〈좋은음악 소리랑 강사모집〉
「영유아 음악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좋은음악 소리랑(www.sorirang.net)에서 2016년도 신입 및 경력사원(강사)를 공개 채용합니다. 당사의 채용공지는 한국음악학사 하위취득자에 한함.」
1) 지원자격
- 신입/경력 모두 지원 가능
- 대졸 및 예정자 포함

영화리뷰

킹스맨 : 시크릿 에이전트

'Manners make man'(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대사를 낳은 첩보물이다. 영화관람 리뷰를 살펴보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 볼거리가 많고 흥미로웠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벼운 액션 코미디를 기대하고 갔더니 웬 B급 영화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입소문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기대 이상의 흥행을 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 영화의 시놉시스는 마블(Marvel) 히어로 무비에서 흔히 등장하는 스토리이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킹스맨〉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감독 메튜 본(Matthew Vaugh)의 마이너한 취향 때문이다.

머리가 폭발하는 장면, 교회 안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장면, 살육을 적나라하게 다루는 와중에도 절대 유쾌함을 놓지 않는 것이, 감독이 영화에서 지키는 철칙이다. 영화의 끔찍한 장면이 희화되어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점에서 관객들은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킹스맨 : 시크릿 에이전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잔인함 속에서 피어나는 희화의 미'라고 정의하고 싶다.

황윤재 기자

사진이야기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최소 일곱 곳에서 연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약 130여명이 사망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다에시는 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파리테러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SNS 글이 게재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내놓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프로필사진에 프랑스 국기 색 필터를 설정하게 해, 파리 시민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 확인 기능을 도입하여 참사현장에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 안부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만든 이미지와 동시에 #prayforparis 라는 해시태그를 하여 프랑스 파리 테러의 희생자를 애도하였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파리 테러에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빈다.

정혜윤 기자

Diary of hope

꿈꾸기 시작하는 나이, 스무 살

한양대학교 한 곳만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연습했던 날들을 거쳐 합격통지서를 받고 감격해 울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들뜬 마음으로 새내기 생활을 시작하여 고등학생 때와는 달랐던 자유로운 생활에 많은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좋은 인연들 덕분에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 년 동안 좋은 기회로 공연도 할 수 있었고 전공 수업과 특강을 통해 폭 넓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제 자신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만큼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나태해지지 않고 졸업 후 후회되지 않을 대학생활로 남을 수 있게 항상 꿈꾸며 성장해가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입생 성혜경

간직해야 할 4년의 추억

2012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양대학교 정문을 나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졸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겐 4년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으로 하고 싶은 일들과 하지 못한 일들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졸업이지만 좋은 선배, 동기, 후배들과 좋은 작품의 공연, 동아리 활동 등 많은 것들을 겪고 추억에 남기며 점점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뜻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학교생활을 마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되새깁니다.

이젠 한양대학교 학생이 아닌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직은 두려운 첫 발이지만 2012년 한양대 정문을 나설 때처럼 다시 한 번 초심과 열정으로 한양인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학교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늘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양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학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12학번 동기들과 후배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며 항상 성장해 나가는 한양인이 되길 바랍니다.

졸업생 박태윤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 많은 변화가 있던 해였다. 대학원을 수료했고, 2년간의 조교도 끝이 났다. 그리고 학교 밖의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해볼 기회도 있었다. 연초에는 가지 않을 것만 같던 시간이 어느새 해가 바뀌어 있었다. 또 한 살을 먹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20대 후반을 지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생각도 많아지고 같은 일을 겪더라도 많은 생각들이 든다. 점점 경험과 지식이 쌓이기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싶다.

조교가 끝나고 조금 여유가 생겼었다. 항상 정신없었던 것 같은데 내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 기분이나 성격, 분위기,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바뀌었다. 나도 모르게 예민해 있었는데 마음도 몸도 조금은 편해지고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학교 밖의 다른 일을 하게 되었을 땐 다시 조금 예민해졌었다. 출퇴근 해야한다는 압박감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조금 스트레스로 왔던 것 같다. 너무 갑작스럽게 계획에 없던 일이기도 했고... 내 나름의 계획했던 일이 틀어졌다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꾸고 적응하고 나니 별일 아니구나 싶었다. 잠시 학교와 멀어져서 다른 일을 하며 다른 생각들, 다른 시각들을 볼 수 있으니 좋았다. 물론 학교의 상황이나 일들과 조금 멀어지고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시작할 땐 어영부영이었는데 마칠 땐 너무 많은 것들을 얻었다. 나의 새로운 모습도 보고, 새로운 사람과 경험, 공부 등 생각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 스스로도 바뀌려 노력했고,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많은 것들이 열리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 항상 조급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조금씩 꾸준히 해보려 한다. 2015년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얻은 다양한 경험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 소중함을 기억하며 2016년도 잘 쌓아 조금씩 성장 수 있기를 바라본다.

쿰댄스컴퍼니 김소연

2015 김운미 교수님 동정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이자 예술·체육대학 학장인 김운미 학장님은 올해 광복7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루는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쿰 댄스 컴퍼니는 2015년 7월 3일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묵간 열여섯 번째 '시간의 역사'를 시작으로 9월 10, 11일 양일간 역사를 다룬 다큐댄스 '축제70'을 극장 용에서 선보였다. 총 예술감독 김운미 학장님의 어머니이자 스승이신 이미라 선생님의 작품 전시와 함께 진행되었던 '축제70'은 다양한 오브제의 활용으로 많은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김운미 무용단은 조선일보 통일나눔펀드의 기부금 동참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위로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KBS, Ktv, 이데일리와 같은 신문사와 월간 잡지사의 많은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였다.

우리춤연구소는 올 한해 2월, 5월, 8월, 12월 각각 28·29·30·31집 우리춤과 과학기술 논문집을 발간하였고, 2005년 발족된 우리춤연구소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여 11월 7일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302호에서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에서의 융·복합 사례들을 논의함으로 각 학문들의 동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HKJ는 올해 1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다양했던 활동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 신중히 논의하며 HKJ의 독창성을 위하여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김운미 학장님은 2015년에도 많은 작품들의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안무자로서 작품성을 기여하고 왕성한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는 풍성한 한 해를 마무리 하였다. 바쁜 한 해를 보내는 와중에도 올바른 교육자와 연구자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는 학장님의 모습에 존경을 표하며, 2016년에도 뜻 깊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공주희 기자

HKJ 만든 사람들 ♡

HKJ (Hanyang Korean dance Journal)

HKJ는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무용계의 우체통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계좌번호안내〉
국민은행 : 박진영(HKJ신문)
280601-04-164329
E-MAIL : kip1004@nate.com / andydwodms@naver.com

QR코드로 만나는 HKJ와 KUM dance company

HKJ QR 코드

KUM QR 코드